

우석대 박상혁 교수, 국제문화기술진흥원 '학술상'

우석대학교 박상혁(문사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년 신년교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혁 교수는 지난해 국제문화기술진흥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군사과학기술의 융복합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투고하며 연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제문화기술진흥원은 미래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교육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박상혁 교수는 "국가보안과 군사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희대를 졸업하고 이주대와 중앙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박상혁 교수는 현재 (사)국제융·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신운주 무주이장협의회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5일 신운주(현 무주읍이장협의회장) 씨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신운주 씨는 "무주읍에서 이장을 오래 보면서 느낀 점은 지역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러려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그 토대를 다지는 데 다스리니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이래 총 11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인재육성기관학교 운영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기업인 김원덕·공익권 가족, 고향사랑 기부

순창군은 지난 4일 순창군 순창읍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조경식재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린조경 서한복 회장의 사돈 김원덕 씨와 공익권 씨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고향인 김원덕 씨와 공익권 씨는 순창군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기부로 온정을 베푸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서한복 대표의 애향심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김원덕씨는 "순창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으며 '앞으로도 순창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익권 씨도 "발리시나 순창군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취약계층에 온정 나눔

신태인농협(조합장 황취중) 및 임직원은 지난 3일 연말연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99개 마을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지역산물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였다.



김진대(감곡 중평마을) 이장은 "신태인농협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눔현장을 함께한 황취중 조합장은 "농협의 가장 큰 가치는 나눔과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남원시, 2024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남원시는 지난 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회장 곽철근)가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최경식 남원시장, 대한노인회 관계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7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참여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 및 운영 방법, 안전교육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등 6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읍면동에 2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9개 다양한 사업으로 4,8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의 활동이지만, 일자리 참여 시 어르신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안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나눔연맹, 익산시에 백미·라면·김치 등 기탁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은 지난 5일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백미 10kg 1000포와 라면 500박스, 김치 10kg 500박스를 기탁했다.

후원된 물품은 정부의 지원없이 후원금으로 마련되었고, 먹거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계획이다.

안미란 이사장은 "익산시와는 복지업무협약을 맺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익산시민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준비했다"라며 "한파와 생활고로 지치신 분들에게 설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해마다 익산 시민을 위해 많은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원해 주신 소중한 백미와 라면, 김치를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한국나눔연맹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92년 개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익산=이재훈 기자



무료급식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전 세계 지구촌 빈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와는 2021년부터 관계를 맺고 그동안 백미 30,000kg, 라면 1,500박스 등 대량의 물품을 지원해주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시 신임 읍·면·동장들, 경로당 순회방문으로 업무 시작

지난 2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정읍시 읍·면·동장들이 경로당 순회방문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먼저, 지난 3일 초산동 신임 고유화 동장은 첫 일정으로 지역 내 19개소 경로당을 이틀에 걸쳐 방문 현장행정으로 동정 업무를 시작했다.

고 동장은 경로당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로당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고 초산동장은 "재해를 맞아 더 발전하는 초산동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갈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같은 날 광천원 신의면장 또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곽 면장은 경로당 시설 점검과 함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노인 정책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했다.

어르신들은 "재해를 맞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복지정책을 설명해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곽 면장은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 산서면, 진전마을 이장 500만원 성금 기탁

장수군 산서면 진전마을 이장 모경환(74)씨가 4일 산서면 사무소를 찾아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모경환 이장은 "2024년 진전마을 신임 이장의 첫 발걸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이러한 나눔을 통해 지역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최길환 산서면장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모경환 이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취약 계층에게 고루 전달하여 산서면의 행복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민원실, "민원 맞이 준비 완료"

정읍시 민원실 직원들이 안내 조끼를 착용하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민원 응대에 나선다.

민원 응대에 나선 직원들은 근무 경력이 많은 팀장급 이상으로 이뤄졌다. 직원들은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민원인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고,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팩스기 등을 비치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은 "통일되고 깔끔한 복장으로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김명자 의장,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김제시의회 김명자 의장이 지난 5일 의회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명자 의장 및 임영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긴급 지원, 응급처치 및 수상안전 교육, 청소년적십자(RCY)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사용된다.

김명자 의장은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김제시의회도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매년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된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환경개선 등의 긴급 지원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보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정호 의장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적십자 봉사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며 "적십자회비가 이러한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는 데 사용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꽃이 피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최근 의회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이경애 부의장 성종기 운영위원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완주지구협의회 박현미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해 이재민 구호 △사회봉사 △저소득층 생계지원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남용 의장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이 많이 모이기를 희망하며 완주군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